

법에서 논의된 중요한 성과들을 증용의 입장에서 소개하여 현대언어학을 조감하였고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언어에 관한 이론을 포괄하여 언어의 여러 면을 흥미있게 서술하였다. 언어학도는 물론 언어와 관련된 학문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언어의 이해를 위한 좋은 안내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언어 연구사와 의미론 부분이 다소 소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언어 연구사는 제 7장의 끝부분에서 19세기 후반의 역사·비교언어학과 미국의 구조주의 언어학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생성문법이 탄생되기 직전의 배경을 밝히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인류의 언어에 대한 오랜 연구사와 특히 Saussure의 업적과 그를 기점으로 한 구라파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소개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의미론에서 의미 연구의 문제점은 흥미있게 서술되었는데 실제 의미 분석은 범위를 축소하여 어휘의미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투사규칙과 전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화용론에 대한 짧은 언급에 그치고 있다. 지금까지의 여러 이론적인 배경에서 논의된 의미 연구를 좀더 소개했으면 언어 연구의 분야를 보다 넓게 보여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

언어학 개론

남기심 · 이정민 · 이홍배, 탐출판사, 1977, 349면

국내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저서가 출간된 지 9년이 되었다. 그 동안 이 책이 우리 학계에서 담당해 온 역할을 생각해 보고 책의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도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 책은 언어 연구의 3인의 대가에 의하여 저술되어 1인의 저자에 의한 개론서가 달성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지금까지 언어학 입문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변형생성문법이 출현하고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여 세계적으로 열띤 논쟁 속에서 언어학이 나날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동안 국내에서도 언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일부에서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1970년대 전기에 변형생성문법은 국내학계에서 정착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언어학이나 영어학, 국어학 등을 공부하고 싶은 많은 학생들이 변형생성문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언어학 이론을 공부하거나 강의하는 데에서 변형

생성문법을 도의시킬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변형생성 문법의 이론에 기반을 둔 언어학 개론서들이 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책은 가장 빠른 시기에 출간되어 학생들과 국내의 학자들에게 변형생성문법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되어 온 것이다.

이 책에서는 변형생성문법을 이해하기 쉽고 흥미있게 소개하였다. 제 1장에서 언어의 특질 및 언어학의 성격과 유형을 설명하고 Plato로부터 변형생성문법이 출현하기까지의 언어 연구의 역사를 개관하였고, 제 2장에서 언어 습득과 언어능력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변형생성문법의 철학적, 심리학적, 언어학적 배경을 밝히고 언어 연구를 위한 중요 개념과 언어 기술의 방법을 설명한 다음, 제 3장에서 변형생성문법을 소개하였다. 이때의 각 장들 사이의 관계가 변형생성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

제 3장에서 변형생성문법을 소개하는 과정을 보면 문장 성분들의 구조에 대한 개념에서 출발하여 구절구조규칙과 어휘삽입규칙으로 심층구조를 만들어 보인 후 변형규칙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후반부에서는 접속과 내포, 변형규칙의 유형과 적용순서가 체계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용어와 규칙의 설명에 앞서 언어자료를 분석하고 있어서 학생 스스로가 언어 분석에 참여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책은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형생성문법을 소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통사론만 변형생성문법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이론적인 배경에서 연구된 성과들이 전반적으로 포괄되어 있다.

제 4장 ‘의미구조’에서는 단어들 사이의 의미 관계를 어휘의미론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동의성과 중의성 등의 문장들 사이의 의미관계는 개념구조와 표면구조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이밖에도 논리의미론, 언어 사용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수행문의 언표내적 행위와 적정조건, 해석의미론과 생성의미론의 의미표시에 대한 차이, 격문법의 의미표지 방법, Montague 문법 등 의미에 대한 당시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여 어느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여러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하는 의미론의 특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제 5장의 ‘음운구조’에서도 음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 방법인 조음음성학과 구조주의 음운론 그리고 생성음운론의 관점에서의 논의들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제 6장 ‘언어변화’에서는 통시적인 관점에서의 언어 변화와 공간적 차이에 따른 언어 변이를 다루고 있다.

제 7 장 ‘언어학의 응용과 인접과학’에서는 언어 연구가 다른 과학과 관계 되는 측면을 다루고 있는데 논리, 철학, 심리, 문화, 문학, 언어교육과 언어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내용면에서 이 책은 언어와 언어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언어학의 하위분야인 통사론, 의미론, 음운론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였고 통시적인 언어의 변화와 공시적 관점에서의 언어 변이를 설명하여 시간과 공간에 따른 언어 연구의 대상과 방법의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언어학의 연구대상을 모두 다루었다. 그리고 언어학과 인접과학 사이의 관계를 다루어 언어학을 전체 학문의 넓은 영역 속에서 조감해보고 언어학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언어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통사론이 변형생성문법 중심으로 쓰여져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에서 논의된 연구 성과를 다루고 있지만, 언어 연구의 목표와 연구 방법을 생성문법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점에서 이 책은 변형생성문법의 이론을 강조하고 있다. 변형생성문법을 중요시하고 그 소개에 목표를 두면서도 여러 이론적인 배경 아래에서 논의된 연구 성과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이 책은 출간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맞추었을 뿐 아니라 오늘의 시점에서 좋은 개론서이다.

이밖에도 이 책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장과 장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었고 공저임에도 내용이 중복되어 다루어지거나 용어가 혼란되는 일이 없이 정연하고 통일된 서술을 보여 준다. 또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예로 영어와 더불어 국어의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이 언어 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할 뿐 아니라 언어에 대한 관심을 일으켜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각 장의 끝에 연습문제를 첨가하여 내용들을 보완하고 응용·심화할 수 있게 한 점도 좋은 장점이다.

조금 아쉬운 점은 통사론 부분에서 구조주의 언어이론에 입각한 문장분석이 제 3 장 1절의 첫머리에 간략하게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구조주의 언어학의 문장분석 방법을 좀더 충분히 소개하여 구조주의 문법의 통사분석이 지니는 문제점까지를 제시하였다라면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한 이해와 변형생성문법의 이해를 동시에 배가시켰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형태론 부분도 출간 당시의 언어학 풍토에 기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너무 소략하게 생각된다. 이러한 지적은 이 책이 지니는 장점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것이고 그 동안 국내 학계에 끼친 공로에 못지 않게 앞으로 언어에 대한 이해와 언어학도를 키우는 기초 이론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133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접수: 1986. 4. 29.)